

KIA 황인준 독수리 사냥 나간다

오늘 한화전 선발 출격...6월 SK전 3이닝 호투로 '눈도장'을 시른 28이닝 평균자책점 3.54...호투 팬 선발 합류 가능성

황인준이 다시 한번 '호랑이 군단'의 승리를 부른다.

KIA 타이거즈는 25일 우완 황인준을 선발로 해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선발 한 축을 담당했던 임기영이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되면서 선발 한 자리가 비었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은 황인준에게 '임시 선발' 역할을 맡겼다.

황인준의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12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깜짝 선발'로 등판했다.

선발로 등판을 준비했던 외국인 선수 헥터가 갑작스러운 장염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 시작 3시간 여를 앞두고 급히 황인준에게 선발 임무가 주어졌다.

성적은 3이닝 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이었다. 사실상 선발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투수로 역할을 했지만 이날 KIA는 '괴물' 김광현이 출격해 SK에 4-0 영봉승을 거뒀다.

황인준이 초반 기싸움을 잘 해줬고, 당시 중간 계투로 역할을 하던 임기영과 필승조 김윤동이 각각 3.2이닝과 2.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마운드 싸움에서 SK를 압도했다. 또 홈런 포함 멀티히트로 나홀로 4타점을 올린 안치홍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가져왔다.

황인준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이다.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움직임의 직구를 보유한 황인준은 공격적인 승부로 KIA의 2018시즌 '새 얼굴'이 됐다.

한양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5년 KIA에 입단한 황인준은 부상으로 일찍 프로 데뷔 시즌을 접은 뒤 군 복무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제대해 올 시즌을 준비한 '중고 신인'이다.

첫 프로 시즌이지만 배장 있는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은 그는 KIA의 불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올 시즌 18경기에 나와 28이닝을 소화하면서 3.5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황인준에게는 고향에서의 등판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는 알려진 대로 한화 전신인 빙그레에서 활약했던 내야수 황대연의 아들이다.

대전 동광초를 거쳐 충남중-대전고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왔던 황인준은 추억이 많은 대전구장에서 자신의 프로 첫 승에 도전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인준

KBO, 유턴파에 기회

내달 11일까지 드래프트 신청 접수

KBO 사무국이 해외 아마추어-프로 출신 선수와 고교·대학 중퇴 선수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019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온 내야수 이학주(28), 외야수 하재훈(28), 포수 김성민(25)과 경찰청에서 9월에 제대하는 투수 이대은(29) 등 유턴파 선수들이 KBO리그에서 될 기회를 잡았다.

KBO는 24일부터 8월 11일 오후 5시까지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드래프트는 9월 10일에 열린다.

참가 희망 선수는 KBO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원본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사본은 반드시 이메일(kbo10@koreabaseball.or.kr)로 함께 접수해야 한다. KBO는 8월 20일 트라이아웃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호주 프로야구 코리아팀

초대 사령탑에 구대성

호주프로야구리그(ABL)에 첫발을 내딛는 '코리아 팀'의 초대 감독으로 '대성 불패' 구대성(48)이 선임됐다.

ABL 코리아팀의 총괄운영사인 윈터볼코리아는 한국 선수들로 구성된 ABL 제7구단 '코리아 팀'의 초대 사령탑에 구대성이 선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단장은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출신으로 프로야구 삼성에서 14년 박종식(47)이 맡는다.

윈터볼코리아와 ABL은 지난 5월 서울에서 '호주리그 코리아팀 창단 체결식'을 열고 코리아 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외국팀이 호주를 연고로 ABL에 참여하는 건 코리아 팀이 최초다. 구대성을 비롯해 임경완(전 롯데), 고창성(kt) 등이 그간 ABL에서 뛰었다.

감독과 단장을 확정한 ABL 코리아팀은 선수단을 본격적으로 구성한다. 공개 선수 선발 등으로 선수 30명을 뽑고 10월 창단식을 연 뒤 11월 초 호주로 출국한다. 이미 '호 선수'로 영입된 김경언(전 한화)은 ABL을 거쳐 KBO리그 재입성에 도전한다.

코리아 팀은 오는 11월 15일 2018-2019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15년을 기다렸다” ... 광주 동성고, 청룡기 우승

포항제철 꺾고 73번째 주인공 '예비 호랑이' 김기훈 대회 MVP 투수로 3승·결승전 2점포 맹활약

광주 동성고가 '에이스'와 '홈런 타자'로 맹활약한 김기훈을 앞세워 15년 만에 청룡기를 탈환했다.

동성고는 지난 23일 목동야구장에서 끝난 제7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포항제철고를 4-2로 꺾고 우승기를 휘날렸다.

이날 승리로 동성고는 15년 만에 다시 청룡기 정상에 올랐다. 동성고는 김주형·김다원(이상 KIA)·임창민(NC·이상 3학년), 이원석(삼성·2학년), 한기주(삼성)·최주환(두산·이상 1학년) 등이 버티고 있던 지난 2003년 처음 청룡기 우승을 차지했다. 양현종(KIA)이 1학년이었던 2004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거뒀다.

동성고의 전국대회 우승은 '고교 특급' 한기주가 버티고 있던 2005년 대통령배 우승 이후 13년 만이다.

KIA 타이거즈의 1차 지명권을 받은 '예비 호랑이' 김기훈이 우승의 주역이었다.

지난 5월 황금사자기를 앞두고 대상포진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던 김기훈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팀 우승 한번 하고 졸업하는 게 소원이다. 황금사자기 때는 대상 포진에 걸려서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꼭 동성고의 우승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김기훈은 자신의 각오대로 우승 현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기훈은 장중고와의 준결승전 선발로 나와 8.1이닝 4피안타 6사사구 9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며 동성고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그리고 투구수 제한으로 결승전에서는 투수가 아닌 5번 타자의 역할을 맡았다.

"투수로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지만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어서 기쁘다. 결승에서는 타자로 우승에 기여하겠다"던 김기훈은 자신의 이야기대로 결승에서는 '홈런 타자'로 변신해 승리를 이끌었다.

희진의 안타와 지강혁의 희생플라이 등을 묶어 1회초 선취점을 낸 동성고는 2회 선두타자 김기훈의 2루타를 발판 삼아 추가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지강의 볼넷으로 시작된 3회, 이번에는 2사 3루에서 김기훈이 야에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4-0을 만들었다. 마운드에서는 오승윤이 빛났다.

포철고 조일현의 솔로포가 나오면서 4-2로 좁혀진 5회말, 선발 사이드암 이재원에 이어 좌완 오승윤이 동성고의 두 번째 투수로 나섰다. 연속 볼넷은 내줬지만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막은 오승윤은 이후 8회까지 삼자범퇴 행진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진



광주 동성고 선수들이 지난 23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포항제철고를 4-2로 꺾고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조선일보 제공>

망을 흘렸다.

2루수의 실책성 플레이로 내야 안타를 내준 뒤 볼넷을 기록하며 2사 1-2구가 됐다. 더블 스틸을 허용하면서 2사 2-3루, 안타 하나면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오승윤은 조율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팀의 우승을 확정했다.

투타에서 맹활약한 김기훈이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고, 5이닝 1피안타 3볼넷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결승전 승리투수가 된 이재원이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중견수 김현창은 수훈상을 받았다. 우승을 지휘한 김재덕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동성고 김영길 교장과 이정현 부장은 각각 공로상과 지도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노회찬 의원 잊지않겠습니다”

'투구수 제한제' 도입 밀거름 프로야구선수협 애도 성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야구 선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고(故) 노회찬 의원을 애도했다.

선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유명을 달리던 노회찬 의원을 애도하며, 야구 선수의 인권개선에 기여했던 노회찬 의원을 잊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수협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2007년 고교야구대회에서 선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무리한 투구를 한 학생 선수들의 혹사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노 의원의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들의 무리한 투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선수협은 최근 아마추어 야구에 도입된 투구수 제한 제도는 고인의 노력이 밀거름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또 선수협은 "노 의원이 속한 정당이 2014년 프로야구 구단이 소속 선수들을 CCTV로 감시한 부분에 대한 생활침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프로 선수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며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에 앞장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